

# 방역지침 지키며 차분한 관람

## 광주비엔날레 첫 주말 표정

3일간 본전시관 등 8700명 다녀가 단체관람 받지 않고 월요일 휴관 비대면 해설 '오디오 가이드' 활용

이슬비가 내리는 지난 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영향으로 두 차례 연기됐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방역지침을 지키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모습이었다. 올해는 단체 관람객을 받지 않고, 처음으로 월요일에 전시장 문을 열지 않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시작됐다.

비엔날레 개막 첫날이었던 1일을 포함해 첫 주말 3~4일 등 3일간 비엔날레전시관 관람객 수는 7005명이었으며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등 광주 전역에 흩어진 전시장의 총 관람객수는 개막 3일간 8747명이었다.

전시관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손소독, 명부 기입 등을 마치고 입장한 관람객들은 올해 처음 무료로 개방된 제 1전시실에 들어섰다. 이번 행사에서는 매 전시실 입구마다 체온 측정과 손소독을 해야한다. 예전에는 티켓박스가 야외에 있었던 데 반해 올해는 1 전시실에 티켓박스과 물품보관소, 안내리플릿 등을 비치해 관람객들이 편하게 전시관을 시작할 수 있다. 1전시실에는 김상돈·민정기·문경원 등 국내 작가와 아일랜드 출신 작가 존 제라드의 영상 작품 등이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은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1전시실의 작품은 이어지는 2-4전시실에서 만나는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미리' 만나는 의미가 있어 계속 관람하다 보면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관람객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은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오우티 피에스키의 '함께 떠오르기'로,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이들이



- ① 메인 카테고리에서 광주비엔날레 앱을 눌러주세요.
- ② 전시관 썸네일을 누르면 작품 상세정보 및 오디오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원하는 작품의 오디오 가이드를 선택해주세요.

이 많이 보였다. 또 콜롬비아 작가 아나 마리아 밀란의 영상 작품은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구성으로 인기를 모았으며 3전시실에서 만나는 그의 또다른 작품 '해피 피플'은 광주에서 작업해 눈길을 끌었다.

주말인 이날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또 작품 해설이 담긴 오디오 가이드를 휴대폰에 내려받아 세심하게 작품을 관람하는 '나홀로 관람객'들도 보였다. 전시관람 중 쉬어갈 곳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나왔었는데 올해는 영상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구조물을 다양하고, 넓게 배치하는 등 배려를 해 관람이 편하다는 반응이었다. 또 야외로 창을 내 푸른 신록이 한눈에 들어오는 3전시실은 독특한 공간 구성으로 전시 관람의 또 다른 즐거움을 전한다.

팬데믹, 성소수자 문제, 소수민족 문제, 페미니즘,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작업한 영상 작품들을 차분히 관람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상작품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작품은 차분히 관람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전시내용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방문한 이들의 경우 "눈에 확 띄는 작품이 별로 없다. 어렵다. 무겁다"는 반응이었다. 오디오 가이드를 활용하며 홀로 관람하던 이정희(32) 씨는 "사머니즘이나 잘 알지 못하는 타지역 소수민족의 이야기 등은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며 "환경이나, 페미니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 차분히 관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시관람에서는 비대면 전시 음성 해설 '오디오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아무래도 현대미술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어 직접 해설을 듣는 도슨트 제도를 활용하는 관람객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도슨트를 운영하지 않고,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한다.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하면 69작가(명/팀)의 작품 설명과 함께 감독 인터뷰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뮤지엄 테크 기업 ㈜피플리가 구축한 애플리케이션 '큐피커'는 구글과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티켓 박스에서 상세한 안내 설명을 해준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테마로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전은 비엔날레전시관 이외에도 국립광주박물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정신을 탐색한 GB커미션(옛 국극광주병원·아시아문화전당·광주문화재단), 5·18민중화운동 40주년 기념전 '메이투데이'(옛 국군광주병원), 국내외 미술관을 연결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은암미술관·아시아문화전당)도 열린다. 비엔날레 전시관 이외에는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곽수봉 작 '경기전의 봄'

## 화사한 꽃·돋아나는 새순... '봄'을 맞이하다

남도수목화협회 회원전, 7일까지 무등갤러리

광주·전남은 소치 허련, 미산 허형, 남농 허건, 의재 허백련으로 이어지는 남도 수목의 전통과 예술혼이 흐르는 고장이다.

지난 2018년 창립된 남도수목화협회(회장 곽수봉)는 남도 수목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 해석 등을 통해 수목화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결성됐고 매년 회원전을 열어왔다. 수십년 수목화에 매진해온 원로작가들의 작품과 수목화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젊은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수목화의 세계'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기획전이다.

남도수목화협회 제4회 회원전이 오는 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무등갤러리 초대 '봄' 특별전으로 마련됐다.

'남도수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 40명의 다양한 작품과 함께 남도 수목의 큰 맥을 형성한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

는 기회여서 눈길을 끈다. 전시작들은 다양한 사계를 담되, 특히 화사한 꽃과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한 나무, 봄기운이 완연한 산의 모습 등 화사한 봄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전시에는 공재 윤두서의 '산경도구도', 허련의 '부춘산도', 허백련의 '대봉'을 비롯해 허건·조방원·문장호·김형수 등 남도 수목화단에 큰 획을 그은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됐다.

회원 작품으로는 삼진강 상류의 풍광을 담은 그림을 출품한 이광래 작가를 비롯해 이민식·오건규·정평남·김대원·김은자·홍정호·백현호·박홍수·허달용·이경민·정인수 작가 등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작은 아름다운 흥도의 풍경, 쟁기질 하는 농부 등 다양한 모습을 전통적인 수묵과 실험적인 기법으로 묘사한 작품들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모차르트부터 쇼팽까지... 신창용 피아노 연주회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지나 바카우어 국제 아티스트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신창용(사진) 피아노 리사이틀이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2018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아티스트 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2017년 서울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2016년 힐튼 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신 씨는 이날 고전주의 모차르트부터 낭만주의 쇼팽과 라흐마니노프를 지나 인상주의 라벨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8번'을 시작으로 라벨 '밤의 가스파르', 쇼팽 '스케르초 4번',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등을 선사한다.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곡은 대중들에 처음 선보



이는 곡이며,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한국에서 초연하는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내 수리음악콩쿠르, 소년 한국일보, 삼익콩쿠르, 이화·경향 콩쿠르 등을 모두 석권하며 주목을 받아온 신

씨는 예원학교, 서울예고,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공부했으며, 미국 커티스음악원,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했다.

문의 02-2658-354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후 첫 휴일이었던 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 제3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이 영상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SA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